국어방정식
공식으로 명쾌하게, 국어도 방정식처럼!

임호은전

작자 미상 · 고전 국문 소설·영웅 소설
2023년 11월 고1 · G202311H1
원문 읽기 · 그림 요약 · OX 40 · 객관식 15 · 정답과 근거

기본 → 심화 → 최고난도 순으로 읽고 판단합니다. 오답은 원문 근거와 대조하여 바르게 고쳐 쓰세요.

목차

샘플 4쪽 · 아래 항목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표지·목차	1쪽
암기 그림 — 첫 페이지	2쪽
어휘 그림 해설 — 첫 페이지	3쪽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— 문제 첫 페이지	4쪽

본문 [번호]는 이 학습지의 문단 번호입니다. 해설의 근거 번호와 연결하여 읽으세요. 발췌 범위 밖의 줄거리와 구분합니다.

배포번호 G202311H1-SR-REV20261022-R3

② 암기 그림 — 4묶음 × 3컷

암기 그림 1 · 부적을 나누어 줌 → 칼을 막은 신장

1



2



3



부적을 나누어 줌 → 위조 편지의 모함 → 칼을 막은 신장

1. 부적을 나누어 줌 [1]

임호은은 부모와 승상 부부, 처첩과 비복에게 부적을 나누어 준다. 위험에 대비하는 행동과 천명을 기다리는 태도가 함께 나타나므로 기다림을 무대책과 동일시하지 않는다.

2. 위조 편지의 모함 [1]

양처상과 사일보가 서간을 위조한다. 독자는 위조 사실을 알지만 천자는 필적을 진짜 증거처럼 믿어 체포를 명한다. 뒤의 참수 지시는 양처상 등이 호연수에게 전달한 말이다.

3. 칼을 막은 신장 [3]

호연수가 부자를 베려 하자 철갑 신장이 칼을 막고 충신을 해치지 말라고 꾸짖는다. 이 신장은 이 대목에서 등장한 별도 조력자이며 뒤의 구출 장면에 쓰인 같은 호칭과 구분한다.

암기 그림 2 · 어명을 따르는 부자 → 유배지에서 구원 길로

4



5



6



어명을 따르는 부자 → 상처 없는 형벌 → 유배지에서 구원 길로

4. 어명을 따르는 부자 [4]

호연수는 신장에게 제압된 뒤 애걸한다. 부자는 그가 강제로 굴복시켜서가 아니라 신하의 도리상 군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결박을 받아들인다.

5. 상처 없는 형벌 [5]

천자는 부자의 말을 변명으로 받아들여 매질을 강화한다. 몸이 상하지 않는 비범함이 드러나도 군주의 오해는 즉시 풀리지 않으므로 신체적 보호와 혐의 해소를 구분한다.

6. 유배지에서 구원 길로 [6]

중략에서 유배된 임호은은 천기를 살펴 천자를 향하고 유수 선생에게 장비를 얻는다. 뒤의 설명은 그 동기를 구체화하지만 여기서 모든 구출 과정이 미리 제시된 것은 아니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③ 어휘 그림 해설 — 12컷



1. 부마

뜻 임금의 사위.

배경 임호은을 가리키는 신분 호칭이다.

작품 속 쓰임 부마가 가족을 보호하고 천자를 구한다.



2. 비복

뜻 남녀 종을 통틀어 이르는 말.

배경 가문에 속한 여러 사람까지 보호하는 범위를 보여 준다.

작품 속 쓰임 임호은이 비복에게도 부적을 준다.



3. 서간

뜻 편지.

배경 필적을 본뜬 거짓 증거가 고난을 만든다.

작품 속 쓰임 간신들이 위조 서간으로 역모를 꾸민다.



4. 찬역

뜻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반역.

배경 천자가 충신을 처벌하게 되는 거짓 혐의이다.

작품 속 쓰임 서간이 찬역을 도모하는 글처럼 꾸며진다.



5. 신장

뜻 신통한 힘을 지닌 장수.

배경 초현실적 조력자가 위기에 개입한다.

작품 속 쓰임 철갑 신장이 호연수의 칼을 막는다.



6. 이실직고

뜻 사실을 그대로 고함.

배경 군주가 잘못된 전제 아래 자백을 요구하는 장면이다.

작품 속 쓰임 천자가 부자에게 역모 사실을 말하라고 한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

실전 5지선다 1부 · 일반 1~5

1. 서간과 명령의 전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호연수가 참수를 시도한 것은 천자가 부자의 해명을 들은 뒤 형벌을 확정했기 때문이다.

② 신장이 명령의 엄혹함을 언급하므로 체포와 참수 사이의 차이는 사건의 의미와 무관하다.

③ 서간의 외형을 믿은 천자의 체포 명령은 양처상 등의 전달 과정에서 참수 지시로 가중된다.

④ 천자가 서간의 진위를 조사하도록 명하자 양처상 등은 그 조사의 결과로 참수를 결정한다.

⑤ 서간에 나타난 필적을 독자도 확인하므로 천자와 독자는 역모가 사실이라는 판단을 공유한다.

2. 신장의 개입 이후 부자의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물리적 공격을 막은 뒤에도 부자는 군신의 도리를 근거로 결박에 응하므로 보호와 복종이 함께 나타난다.

② 호연수에게 제압당한 부자가 군신의 도리를 내세우므로 복종의 말은 무력 패배를 숨기는 변명이다.

③ 신장이 충신이라 선언했으므로 부자는 무죄를 확신한 천자의 보호 명령에 따라 결박을 받는다.

④ 부자의 결박 수용은 위조 서간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이후의 변론과 충돌한다.

⑤ 초월적 도움을 받은 뒤에도 결박되므로 신장의 개입은 칼을 막는 실제 효과가 없는 기대에 그친다.

3. 형벌 장면과 중략 줄거리의 관계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유배가 이어지므로 상처가 없었다는 앞선 묘사는 실제 사건이 아닌 임호은의 소망으로 수정된다.

② 형벌이 강화될수록 임호은의 충성도 약해져 천기를 살피는 일은 복수를 준비하는 수단이 된다.

③ 중략에서 장비를 얻으므로 앞의 상처 없는 몸도 유수 선생의 갑옷을 이미 입은 결과로 설명된다.

④ 몸이 상하지 않는 보호가 드러나도 유배는 이어지므로 신체적 위기의 모면과 혐의의 해소는 구별된다.

⑤ 상처가 없다는 사실을 천자가 확인하므로 유배는 죄를 묻는 처분보다 신통력을 보상하는 이동이다.

4. 연회장에 들어간 임호은의 선택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천자를 데리고 떠난 뒤 적을 베므로 군주의 안전을 확보할 때까지 공격을 전혀 하지 않는다.

② 상황을 살핀 뒤 제압하고 안전을 위해 탈출하는 행동은 힘을 구출 목적에 맞게 조절하는 판단을 보여 준다.

③ 관찰 뒤 급습한 것은 적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뜻이므로 현장의 정보는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④ 호왕을 베지 않은 것은 적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므로 탈출은 힘의 부족을 보완하는 수단이다.

⑤ 천자를 전포로 가린 것은 천자에게 정체를 숨겨 공을 독점하려는 행동으로 뒤의 이름 공개와 대비된다.

5. 천자가 구원자를 알아보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구원자를 신장으로 긍정했으므로 이름을 듣기 전에도 임호은의 역모 혐의를 바로잡은 상태이다.

② 천자가 정체를 모르므로 독자도 부마가 연회장에 들어왔는지 이름 공개 전까지 알 수 없다.

③ 자신의 위치를 물은 것은 구출자를 의심하여 공적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의도이다.

④ 임호은의 이름을 듣고 놀란 것은 그가 구출할 것을 미리 알았으나 예상보다 늦게 왔기 때문이다.

⑤ 이미 구조의 효과를 겪었지만 이름을 들은 뒤에야 그 행위와 임호은을 연결하여 알아본다.

▲ 누르면 목차로 이동